

權慄都元帥 제420주년 梨峙大捷祭 奉行

“倭軍의 銳鋒을 殲滅하고 湖南 死守”



8·26 충남 진산 총장사에서 이치대첩 기념제가 봉행되고 있다.



박동철 금산군수와 신정교 축관의 독축

지난 8월26일 일요일 10시에 충남 대문산 이치계곡(충남 금산군 진산을 복산리)에 위치한 이치대첩지 총장사 사당에서 금산군이 주최하고 이치대첩기념제 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한 행사에 박동철 금산군수, 김복만 금산군 의회위원장, 지역금산유림, 현종대 기념제추진위원장, 지역기관단체장, 육군 제1970부대 장병포함 총500여명이 행사에 참석하였으며, 권문(權門)에서는 서울에서 안동권씨대종원에서 권혁승 상임부총재 겸 추밀공파회장, 권태강 검교공파회장, 권영갑 지역종친회협의회간사 그리고 권익현 전교문, 권영범 총장공파회장, 권정택 기보회장 외 행주대첩제전위원회 일행이 관광버스 1대와 권호준 대전종친회장, 권희철 참의공파회장 일행이 관광버스 1대, 권경관 금산종친회장, 족친 등 포함 권문에서 100여명이 참석하여 금년도엔 전년보다 많은 족친들이 관심을 가지고 성황리에 참여하여 제420주년 이치대첩제가 엄숙히 봉행되었다.

이날 행사는 오전 10시에 이치대첩기념제 추진위원회 김성일씨 사 회로 경과보고와 내빈소개가 있었다. 이어서 제례의식으로 박동철 금산군수의 초헌례 및 전폐례, 김복만 금산군의회의장의 아헌례, 박찬



박동철 금산군수의 전폐례 모습

남제는 임진왜란 육전3대첩 중 최초의 육전 전승지로 전사(戰死)적 의의와 충장공 권율도원수님의 숭고(崇高)한 승전의식을 기리는 기념대첩제입니다.



금산문화예술교육원생의 복춤

도원수 권을 이치대첩비는 1886년 금성면 상가리에 세웠으나 일제 강점기인 1944년 6월 항일 유적 말살정책으로 폭파되었습니다.

그후 1963년 금성면에서 진산면으로 비각을 이전하여 진산면 거주 유지 모임인 흥산

사에서 회사한 임야 10만여 평방미터에 금산지역 유지들이 뜻을 모아 이곳 오대산 자락 복지골 명당자리인 현 위치에 재건립 되었습니다. 도원수 권을 이치대첩비는 1984년 5월 7일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25호로 지정되었으며, 이치대첩지에 대하여 2000년 9월 20일 충청남도 문화재 기념물 제154호로 지정을 받아 지방문화재로 금산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력으로 애로지점을 선점하여 왜군을 계속 깊숙이 유인하여 이치(梨峙)재 일대에서 주력을 격멸하는 입단 초기 결정적 승리로 전세를 회복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당시 이치대첩의 승전효과는 첫째 호남의 곡창을 사수함으로 군량미(軍糧米)를 온전히 보존하는 전략적 승리이며, 또한 이 전투의 승리로 이순신(李舜臣)도 전라좌수영에 발판을 튼튼히 할 수 있어 병량대첩, 노량해전을 성공리에 이끌 수 있게 되어 입단 초기전세를 뒤바꾸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점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육전3대첩 중 최초의 육전 승전지로 전사에 빛난 큰 획을 그었다. 이 대첩의 대승의 계기로 차기 한양을 회복하기 위해 독산성(雋山城)현 오산시 지곡동)전투와 행주대첩에서 대승으로 임진왜란의 승리를 이끄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제례행사가 이어 기념공연 행사가 30분간 총장사 대첩비 앞 뜰에서 금산문화예술교육원생의 승전고, 모듬북 합주 등으로 승리의 함성이 대문산 자락을 진동하였다.

이어 문화 체험행사로 투호놀이 및 이치대첩지 둘러보기(디미터) 등 현지 체험 및 기념촬영으로 권율도원수 이치대첩기념제 행사를 모두 마쳤다.

행사 후 우리 권문(權門)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인사 및 소개 시간 등을 마친 후 대종원 범종 흥보부장이 근간 대종원 카페 회원광장에 개최된 행사 안내와 이치대첩기념제 일정이 매년 8월26일 10시로 대문산 이치계곡 총장사에서 정해져 있음을 공지하였다.

<권범준 본원기자>

淸道 遺墟碑 등 移轉工事 完了



좌측:청도 단비와 유해비, 우측:기 설치된 단소 이단기

담긴 석물(石物)들을 능동으로 옮기고 제의(提議)하여 2012년 5월 24일 대종원총회(大宗院總會)에서 옮기기로 결의 되었다.

청도(淸道)에 있던 석물(石物)의 이전공사(移轉工事)를 안동사무소에서 맡게 되어 2개월에 가까운 기간에 걸쳐 여러 족친(族親)들의 도움을 받아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추진하여 완공하게 되었다.

·2012. 06. 05 이전계획 수립을 위하여 청도 현장답사
·2012. 06. 11 종사연구위원회에

서 석물의 이전내력 문맥 1차 협의
·2012. 06. 26 석물의 이전설명회와 입찰 및 계약(영남석물공장 낙찰)

·2012. 07. 24 석물의 이전공사 위치결정 및 현장지도(영남석물공장)
·2012. 07. 26 석물의 이전공사 완료

◆ 기획 및 공사총괄 : 계동, 종준 오수 영성 재주 경운 순갑 오익
◆ 종사연구위원회 참석 : 계동, 혁승 오춘 기덕 종준 중달 인호 영하 기갑 태현 혁재 경석 순갑
<권계동 상임부총재>

안동권씨 올해 복회(伏會) 암산유원지에서 개최



안동권씨 복회를 안동 암산 유원지에서 개최하였다. (왼내 좌:재주회장, 우:정달 총재)

안동종친회(회장 권재주)는 2012년도 안동권씨 복회(伏會)가 25일 안동시 남후면 광음리 암산유원지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이날 권정달 大宗院 총재를 비롯해서 권영세 안동시장, 김광림 국회의원, 권영해 전 국방부장관, 권오을 전 국회의원총장, 권영건 전 해외동포이사장, 도시의회의원, 종친회원과 부인회원, 그리고 안동권씨 며느리 등 모두 600여명이 참석했다. 어제까지 3일동안 안동지방에는 계속 많은 비가 내렸지만 행사날인 이날은 다행히 비가 오지 않아서 행사를 치르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 복회는 족친간의 친목과 우의를 다짐하고 권문(權門)의 화합을 위해 마련한 행사로 암산유원지에서 연이어 3년째 행사를 하고 있다.

권재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모임을 서로 얼굴을 모르는 족친을 만났으니 몰라도 한 핏줄이니가 우의를 다짐하고 화합의 장으로 만들어 안동의 대성(大姓)

으로서 위상을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재주 회장은 행사를 위해 협찬해 준 족친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않았다.

이어 권정달 대종원 총재는 격려사를 통해 “오늘 복회 때문에 낯설고 고기를 고아내고 삶느라 수고가 많았다”고 주최측을 격려한 후 푸짐한 음식을 먹으면서 즐거운 하루가 되기를 당부했다.

이어서 차례로 권영해 전 장관, 김광림 국회의원, 권오을 전 총장, 권영건 전 이사장의 축사가 있었고

다른 행사 때문에 좀 늦게 도착한 권영세 안동시장과 권순협 농협조합장도 축사를 했다.

이날 주최측은 찬조금과 성금, 선물을 기증한 족친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했으며 점심은 인삼 삼계탕으로 마련했고 수박 등 각종 과일과 소주, 음료수 등 푸짐한 음식을 내놓았다. 점심식사가 끝나자 2부 행사로 여흥시간을 가져 족친 간 우의를 다지는 뜻에서 사전 선발된 대표들이 나와 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안동)

태국 통합물관리 프로젝트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 수주지원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태국 통합물관리 등의 메가프로젝트 수주활동 지원에 나섰다.

13일 국토부에 따르면 권 장관은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을 비롯한 삼성물산, GS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SK건설, 삼한기업 등 ‘물산업 드림팀’ 임원들과 긴급회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포함한 농어촌공사, 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대표단을 구성해 출국했다.

태국 통합물관리사업은 총 25개 주요강 유역에 12조 4000억원을 투자하는 프로젝트로 지난해 차오프라야강 등 대규모 홍수피해를 겪은 데 따른 중장기물관리대책이다.

권 장관은 이날 14일 농업협동부와 수자원관리 기술협력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15일에는 입락총리와 장관 등을 만나 국제임차에 참여하는 우리 물산업드림팀의 수

주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교통부 장관과 에너지부 장관을 차례로 만나 태국 고속철도 프로젝트(1단계 사업 총 100억달러



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편>

규모), 각종 발전플랜트(2030년까지 총 5만 5000 메가와트 규모) 및 석유, 정유 플랜트

권영세 안동시장 ‘행정대상’ 수상

권영세 안동시장(사)전국지역신문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창립제9주년 및 지역신문의 날을 기념해 6월 27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행정대상(자치단체 부문)을 수상했다. 행정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특히 탁월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에 모범이 되는 자치단체장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권영세 안동시장은 민선5기 안동시의 시장으로 문화생산, 기업유치로 안동의 대외 경쟁력을 수직상승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2014년 경북도청 이전에 맞춰 안동을 경북 중심행정 도시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변화의 물결을 주도하고 실경 뮤지컬 생산은 물론 고객 등을 활용한 한·브랜드 수익모형을 제시했고, 특히 민선시장으로서 상시 시민과 소통을 통해

민의 수렴에 앞장서 온 점 등이 높이 평가받았다.

권영세 안동시장을 추천한 지역신문협회 경북협의회는 추천경위 에 대해 권시장은 ‘투자유치와 문화산업’ 개발에 역점을 뒀 경북 신도청시대를 활짝 열어가고 있으며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민생 현장을 직접 챙기고 바이오산업 육성과 중앙상점가 활성화 등 도심재창조프로젝트를 통해 구도심과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해 온 점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또 바이오산업뿐만 아니라 지방의 전통문화인 안동에 산재해 있는 고택 등 관광자원을 세계유산 하화마을 등과 연계해 관광산업을 활성화 하는 한편, 안동의 전통문화를 소재로 한 스토리텔링된 실경뮤지컬 사모·락, 왕의 나라 등 매력적인 관광요소를 생산해 문화의 진



권시장이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들이 속속 성과를 나타내면서 안동지역의 아파트 건설 호황, 공시지가 상승, 출생아 수 3년연속 증가 등 각종 지표도 한 몫 한것으로 나타났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더욱 지역발전을 위해 매진하라는 뜻으로 생각해 시민이 행복한 안동을 만들고 특히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민생을 더욱 챙기고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안동의 경쟁력을 높여 경북 신도청시대를 선도하고 한 문화산업 특구조성 등 안동일을 기할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실질적으로 잘사는 부자 안동건설에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안동향우신문, 2012. 7. 31. 2면 인용>

수를 느낄 수 있는 안동으로 변모시켜 나가고 있는 점 등 지역발전을 위한 전 분야에 걸쳐

대종원 E-Mail 추가개설 안내

그동안 andongkwon@paran 메일을 사용하여 왔으나 파란에서 지원하지 않아 아래와 같이 네이버로 전환 개설했으니 이용바랍니다.

신규개설
ankwon2695@naver.com

기존메일
ankwonjung@yahoo.co.kr